2013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목 차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 7

조사결과 분석 ····· 11

■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13

■ 욕구조사 결과

-개인적 문제인식 ····· 20

-이용시설 실태 ····· 30

-제공서비스의 필요성 ····· 31

-재가복지 제공서비스의 필요성 ····· 33

-여가시간 활용 ····· 38

-남동구 장애인복지 ····· 45

-기타 (서술형 의견) ····· 47

요약 및 제언 ····· 49

▪요 약 ····· 51

▪제 언 ····· 55

2013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중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인 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시설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설과 관련한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로 프로그램별 수시로 상담을 통해 개진 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대표자 간담회를 연2회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자 의견의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매년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 설문조사를 통해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 개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방향 모색 등 조사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욕구조사를 통하여 지역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방향제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2) 남동구 지역 욕구조사를 통하여 이용인의 욕구를 알아보고, 차기년도 및 중·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3)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본 보고서는 2013년 6월에 실시된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Ⅱ.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2013년 6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등 총 340명을 욕구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최근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남동구 비거주 장애인은 사전에 배제하였고, 비동의자 등 현실적 답변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289명에게 설문

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202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남동구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특성과 상황에 맞게 설문지를 변경·제작하였으며, 설문 형태는 본인 및 주부양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문제인식, 실태 및 사회복지욕구, 재가 복지서비스, 여가 및 사회참여,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설문지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이용인의 일반적사항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장애등급/ 경제수준 월평균 수입/ 거주 지역/ 거주기간/ 응답자와의 관계	10문항
개인적 문제인식	문제 해결 방법/ 주요문제 심각성	20문항
실태 및 사회복지 욕구	서비스이용기관 여부/ 이용기관 종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서비스별 필요도	37문항
재가복지 서비스	각 재가복지서비스 필요성	8문항
여가 및 사회참여	주 이용교통수단/ 여가시간 활용/ 여가활동 어려운점/ 각 여가활동 필요성	12문항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관심분야 우선순위/ 남동구 복지수준	2문항
건의사항	서술형	1문항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신뢰도 검증은 설문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아래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개의 항목(기타 항목 및 서술형 항목 제외)에서 신뢰도 계수(α)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2] 케이스 처리 요약

	N	퍼센트(%)
케이스 유효	200	99.0
제외됨	2	1.0

[표3] 설문문항 신뢰도 통계량

신뢰도 계수(α) cronbach의 알파	문항수
.981	78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담당직원들이 이용인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담당 직원이나 1층에 설문지 회수함을 배치하여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타기관 의뢰는 사전에 협의하여 케이스 수를 조사하였고 기관별 배포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직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이용인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응답이 불가능한 이용인들의 경우는 설문지를 이용인의 각 가정으로 보내어 주부양자들이 응답한 것을 담당 직원들이 수거하여 설문 회수함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4]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구분	설문지(명)
설문지 배부	289명
설문지 회수	202명
회 수 율(%)	69.8%

2)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등의 일련의 작업들이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계획 수립은 5월 22일~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부 및 조사기간은 6월 10일~6월 24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의 모든 항목들은 빈도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이외에도 각 변수수준에 따라 분석방법을 변경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3년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결과의 분석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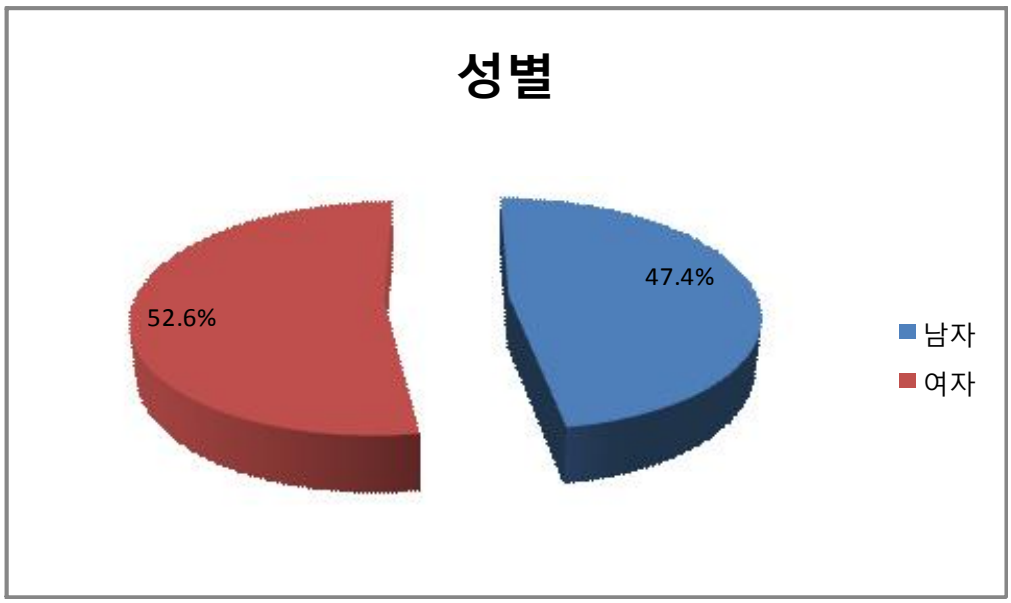
이용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7.4%(93명), '여자' 52.6%(103명)으로 응답자의 남녀 성별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표5]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93	47.4
여자	103	52.6
계	196	100

무응답 제외 (N=6)

[그림1] 성별



②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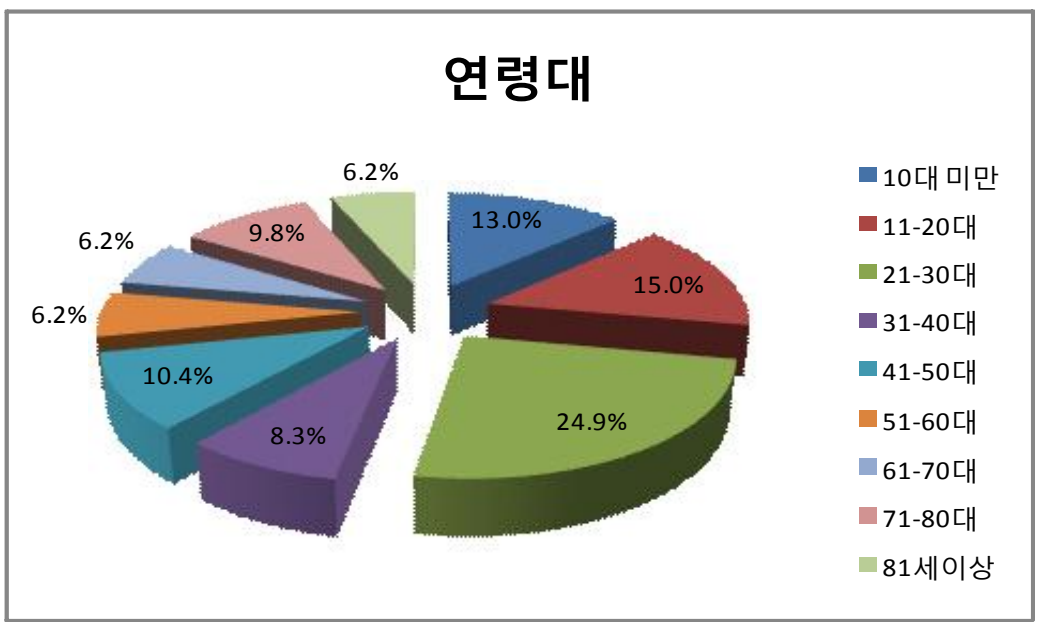
이용인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24.9%(48명), '10대'가 15.0%(29명), '10대 미만'이 13.0%(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관 이용인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최근 복지관 프로그램이 장애인평생교육의 확대로 인한 청년연령의 이용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6] 연령대별

구분	빈도(명)	비율(%)
10대 미만	25	13.0
11-20대	29	15.0
21-30대	48	24.9
31-40대	16	8.3
41-50대	20	10.4
51-60대	12	6.2
61-70대	12	6.2
71-80대	19	9.8
81세이상	12	6.2
계	193	100

무응답 제외 (N=9)

[그림2] 연령대



③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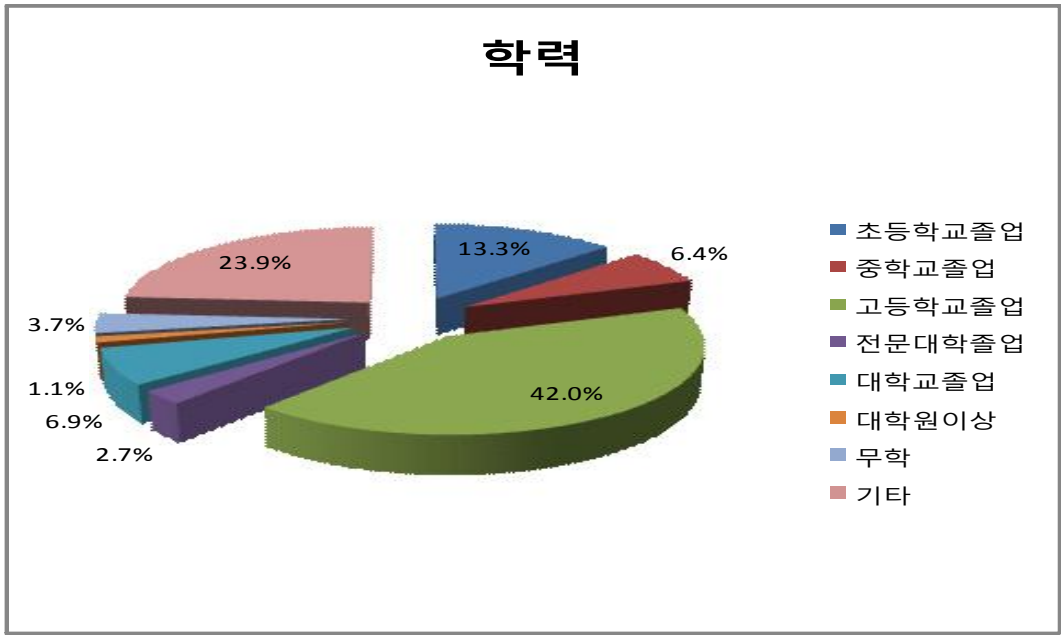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42.0%(79명), '기타-미취학등' 23.9%(45명)이며, '초등학교 졸업'이 13.3%(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7]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초등학교 졸업	25	13.3
중학교 졸업	12	6.4
고등학교 졸업	79	42.0
전문대학 졸업	5	2.7
대학교 졸업	13	6.9
대학원 이상	2	1.1
무학	7	3.7
기타(미취학)	45	23.9
계	188	100

무응답 제외 (N=14)

[그림3] 학력



④ 주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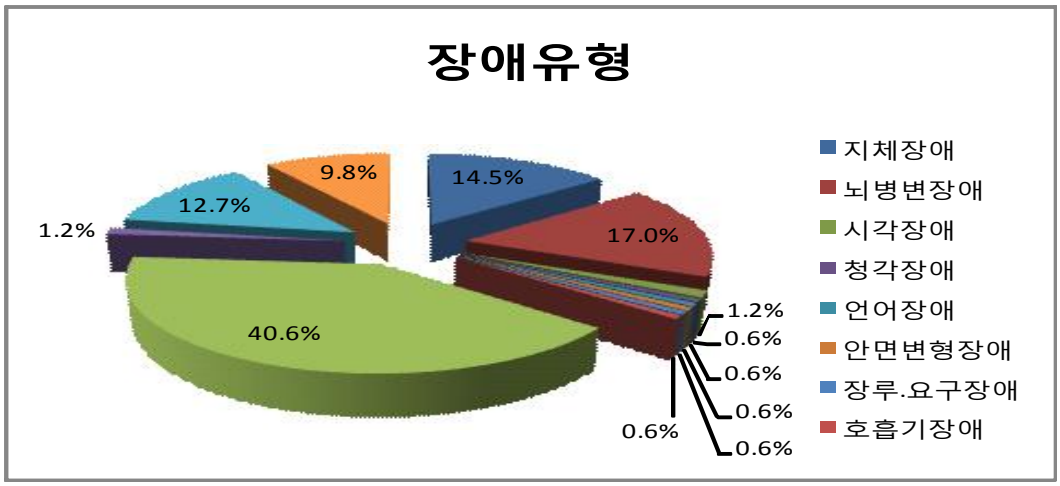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장애유형 분포는 '지적장애' 40.6%(67명), '지체장애' 24.0%(24명), '뇌병변장애' 17.0%(28명)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의 서비스가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중심(재가장애인으로 인한)의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응답 빈도가 높은 것은 장애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인해 매년 조사에서 무응답 비율이 높다.

[표8] 주장애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뇌병변 장애	28	17.0
시각 장애	2	1.2
안면 장애	1	0.6
언어 장애	1	0.6
자폐성 장애	21	12.7
장루. 요루장애	1	0.6
정신 장애	2	1.2
지적 장애	67	40.6
지체 장애	24	14.5
청각 장애	1	0.6
호흡기 장애	1	0.6
미등록	16	9.8
계	165	100

무응답 제외 (N=37)

[그림4] 장애유형



⑤ 장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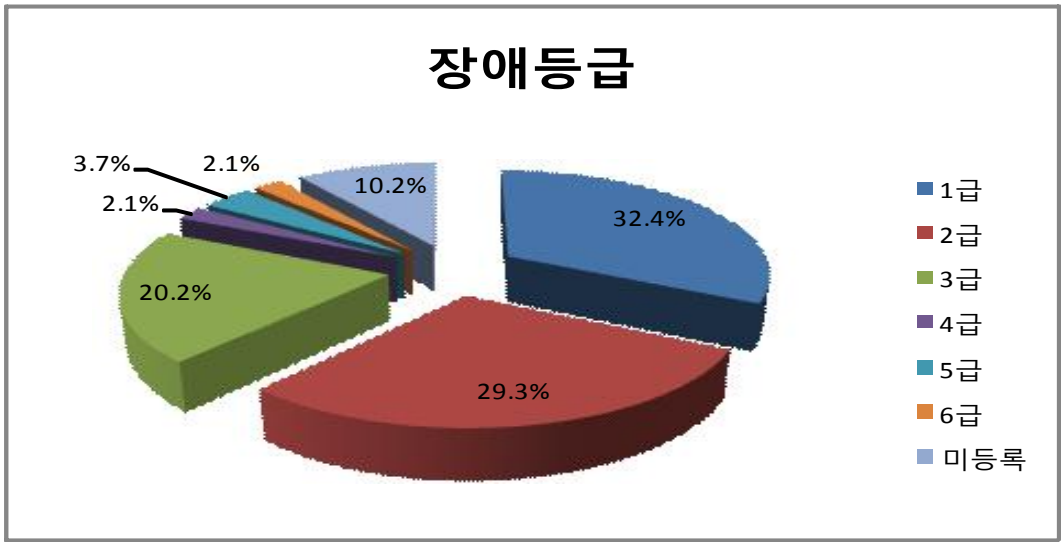
조사 대상의 장애 등급 분포는 '1급'이 32.4%(61명), '2급'이 29.3%(55명), '3급' 20.2%(38명) 순으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1·2·3급 장애인이 81.9%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표9] 장애등급

구분	빈도(명)	비율(%)
1급	61	32.4
2급	55	29.3
3급	38	20.2
4급	4	2.1
5급	7	3.7
6급	4	2.1
미등록	19	10.2
계	**188**	**100**

무응답 제외 (N=14)

[그림5] 장애등급



⑥ 경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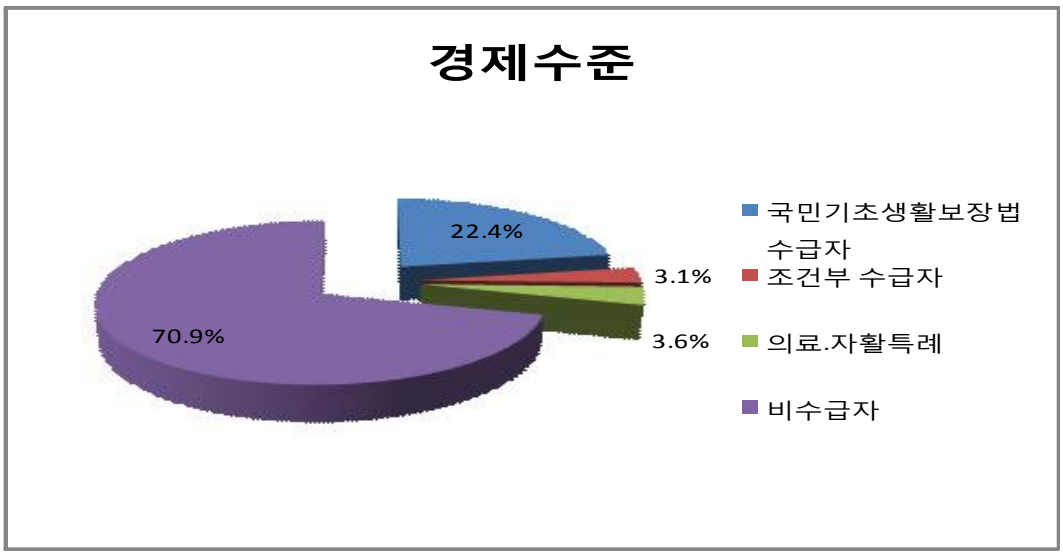
조사대상자 중 '비수급자'는 70.9%(136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22.4%(43명), '의료·교육 자활특례' 3.6%(7명), '조건부 수급자' 3.1%(6명)' 순으로 비수급 일반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정책적으로 자립에 기초한 조건부 수급 및 자활근로 등이 늘어나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줄어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10] 경제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3	22.4
조건부 수급자	6	3.1
의료·교육 자활특례	7	3.6
비수급(일반)	136	70.9
계	**192**	**100**

무응답 제외 (N=10)

[그림6] 경제수준



⑦ 가구 총수입

조사대상자 중 월평균 가구 수입이 '201만원 이상'의 응답자는 41.4%(79명)이며, '50만원 이하' 응답자는 23.0%(44명), '151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응답자는 13.1%(25명), 순으로 경제수준을 묻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11] 가구 총수입

구분	빈도(명)	비율(%)
50만원 이하	44	23.0
51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0	10.5
101만원이상~150만원이하	14	7.3
151만원이상~200만원이하	25	13.1
201만원 이상	79	41.4
없음	9	4.7
계	**191**	**100**

무응답 제외 (N=11)

⑧ 거주지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분포는 '남동구' 74.6%(147명), '인천광역시 내 타지역' 22.3%(44명), '타 시·도' 3.0%(6명) 순으로 조사되어 '남동구'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남동구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조사하기 위함이지만, 거주지역을 벗어나 서비스를 받는경우가 많고 거주지역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표12] 거주 지역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동구	147	74.6
인천광역시 내 타지역	44	22.3
타 시·도	6	3.1
계	**197**	**100**

무응답 제외 (N=5)

2) 개인적 문제인식

① 문제해결

‘귀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족에게 도움요청’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 59.0%(105명)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비율이 줄어들었으나 아직까지 가족에게 요청을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혼자서 해결’ 15.7%(28명),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 12.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3] 문제해결 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에게 도움요청	105	59.0
친구친적이웃들과의 상의	22	12.4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요청	13	7.3
종교단체에 도움요청	2	1.1
TV·신문·인터넷등 정보망이용	5	2.8
혼자서 해결	28	15.7
기타	3	1.7
계	**178**	**100**

무응답 제외 (N=24)

②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

‘귀하가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들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통’ 43.9%(87명), ‘심각함’ 28.3%(56명), ‘심각하지 않음’ 12.6%(25명) 순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분포를 보였다.

[표14] 경제적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21	10.6
심각함	56	28.3
보통임	87	43.9
심각하지 않음	25	12.6
전혀 심각하지 않음	9	4.6
계	198	100

무응답 제외 (N=4)

건강상의 문제는 '보통임' 49.0%(97명), '심각함' 19.7%(39명), '심각하지 않음' 17.7%(35명) 순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심각함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늘어났다. 지난해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기점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15] 건강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6	8.1
심각함	39	19.7
보통임	97	49.0
심각하지 않음	35	17.7
전혀 심각하지 않음	11	5.5
계	198	100

무응답 제외 (N=4)

교육의 문제(교육비 등)에서는 '보통임' 45.8%(87명), '심각하지 않음' 23.2%(44명), '심각함' 14.7%(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10%p 정도 줄어든 수치로 정보화교육을 비롯하여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16] 교육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2	6.6
심각함	33	18.1
보통임	81	44.5
심각하지 않음	30	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26	14.3
계	182	100

무응답 제외 (N=20)

주거 및 주택의 문제는 '보통임' 45.8%(87명), '심각하지 않음23.2%(44명)으로 심각함 이상의 17.9%(34명)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조사에 비하여 그 비율도 10%p 이상 감소하였다.

[표17] 주거 및 주택의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6	3.2
심각함	28	14.7
보통임	87	45.8
심각하지 않음	44	23.2
전혀 심각하지 않음	25	13.1
계	190	100

무응답 제외 (N=12)

일상생활상의 문제(가사 등)는 ‘보통임’ 49.7%(96명), ‘심각하지 않음 17.1%(33명)으로 ’심각함‘ 15.5%(30명)으로 나타났다.

[표18] 일상생활의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8	9.3
심각함	30	15.5
보통임	96	49.7
심각하지 않음	33	17.1
전혀 심각하지 않음	16	8.4
계	193	100

무응답 제외 (N=9)

결혼문제(이성문제)는 ‘보통임’ 31.1%(55명), ‘전혀 심각하지 않음’ 23.7%(42명), ‘심각하지 않음’ 18.6%(33명)으로 보통이하로 생각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73.4%였다.

[표19] 결혼문제(이성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6	9.1
심각함	31	17.5
보통임	55	31.1
심각하지 않음	33	18.6
전혀 심각하지 않음	42	23.7
계	177	100

무응답 제외 (N=25)

취업 및 실업문제는 '보통임' 29.8%(53명), '심각함' 25.3%(45명), '매우 심각함' 15.7%(28명)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대외적인 경제위기설이 매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장애인의 취업 역시 열악해지고 있고,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심각함' 이상이 15%p이상 늘어난 수치가 그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표20] 취업 및 실업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28	15.7
심각함	45	25.3
보통임	53	29.8
심각하지 않음	27	15.2
전혀 심각하지 않음	25	14.0
계	178	100

무응답 제외 (N=24)

심리적 문제는 '보통임' 43.2%(82명), '심각하지 않음' 19.5%(37명), '심각함' 17.9%(34명)으로 나타났다.

[표21] 심리적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7	8.9
심각함	34	17.9
보통임	82	43.2
심각하지 않음	37	19.5
전혀 심각하지 않음	20	10.5
계	190	100

무응답 제외 (N=12)

여가나 취미·문화활동 문제에서는 '보통임' 49.2%(92명), '심각함' 19.8%(37명), '심각하지 않음' 16.0%(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여가활동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복지팀에서 나들이 외에 역사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 서비스를 개시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22] 여가나 취미·문화활동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20	10.7
심각함	37	19.8
보통임	92	49.2
심각하지 않음	30	16.0
전혀 심각하지 않음	8	4.3
계	187	100

무응답 제외 (N=15)

가족문제(갈등, 불화 등)에서는 '보통임' 40.2%(74명), '심각하지 않음' 27.2%(50명), '전혀심각하지 않음' 17.9%(33명) 순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표23] 가족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8	4.4
심각함	19	10.3
보통임	74	40.2
심각하지 않음	50	27.2
전혀 심각하지 않음	33	17.9
계	184	100

무응답 제외 (N=18)

노후문제에서는 '심각함' 이상이 32.4%(58명), '매우 심각함' 27.9%(50명), '보통임' 25.7%(46명) 등으로 나타났다. 노후문제의 심각성은 지난해 보다 약 20%p가 증가하였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인식은 장애인 당사자 역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노후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의료적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4] 노후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50	27.9
심각함	58	32.4
보통임	46	25.7
심각하지 않음	16	8.9
전혀 심각하지 않음	9	5.1
계	179	100

무응답 제외 (N=23)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보통임' 41.0%(75명), '심각함' 23.0%(42명), '심각하지 않음' 16.9%(31명) 순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지난해 비해 늘어났다.

[표25] 대인관계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8	9.8
심각함	42	23.0
보통임	75	41.0
심각하지 않음	31	16.9
전혀 심각하지 않음	17	9.3
계	183	100

무응답 제외 (N=19)

자녀양육 문제에서는 '보통임' 30.0%(51명), '심각함' 21.2%(36명), '전혀 심각하지 않음' 17.6%(30명) 등 자녀 유무에 따라 그 응답이 나누어져 있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로 인해 결측값도 32case나 되었다. 양육문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어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6] 자녀양육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25	14.7
심각함	36	21.2
보통임	51	30.0
심각하지 않음	28	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30	17.6
계	170	100

무응답 제외 (N=32)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심각함' 이상이 44.1%(86명)으로 지난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권 보장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의 이용불편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도록 이용인 소리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도록 할 것이다.

[표27]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23	12.8
심각함	56	31.3
보통임	74	41.3
심각하지 않음	16	8.9
전혀 심각하지 않음	10	5.7
계	179	100

무응답 제외 (N=23)

복지서비스 혜택 문제는 '심각함' 이상이 45.1%(82명)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불만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에서는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는 홈페이지와 이용인 소리함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에대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8] 복지서비스 혜택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24	13.2
심각함	58	31.9
보통임	83	45.6
심각하지 않음	10	5.5
전혀 심각하지 않음	7	3.8
계	182	100

무응답 제외 (N=20)

사회적 인식(장애인차별)문제는 '심각함' 이상이 56.9%(103명)으로 나타났다. 차별문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더 큰 문제는 차별에 따른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식개선, 장애예방교육 등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29] 사회적 인식(장애인차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38	21.0
심각함	65	35.9
보통임	58	32.0
심각하지 않음	14	7.7
전혀 심각하지 않음	6	3.4
계	181	100

무응답 제외 (N=21)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용 문제는 '심각함' 이상이 31.0%(53명)으로 나타났다.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용문제는 정부보조에 대한 부분을 대상자에게 정보 제공하여 다소 경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30]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용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7	9.9
심각함	36	21.1
보통임	51	29.8
심각하지 않음	35	20.5
전혀 심각하지 않음	32	18.7
계	171	100

무응답 제외 (N=31)

소일거리의 부재 문제 '심각함' 이상이 40.3%(67명)으로 나타났다. 소일거리의 부재에 따른 문제 간단한 부업일거리 알선, 여가·취미생활 장려 등 시간활용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1] 소일거리의 부재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심각함	18	10.8
심각함	49	29.5
보통임	62	37.3
심각하지 않음	22	13.3
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9.1
계	166	100

무응답 제외 (N=36)

3) 이용시설 실태

장애인 실태 및 사회복지욕구에 관한 질문으로 첫째,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79.1%(139명)이었고, '없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20.9%(36명)이었다.

[표32] 현 이용시설 존재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139	79.1
없다	36	20.9
계	175	100

무응답 제외 (N=27)

이용시설이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 중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어디 입니까?' 라는 질문에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7%(109명)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학교' 7.9%(12명)이었다.

[표33] 현재 이용시설 기관

구분	빈도(명)	비율(%)
공공기관(시청, 구청, 자치센터 등)	5	3.3
일반학교	4	2.6
특수학교	12	7.9
장애인복지관	109	71.7
장애인고용공단	2	1.3
사회복지관	10	6.6
장애인단체 및 협회	1	0.7
이용하는 시설 없음	1	0.7
기타	8	5.2
계	152	100

무응답 제외 (N=23)

4) 제공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지난해와 달리 제공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는 연령에 따라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보았다. 0~20세 미만을 1그룹, 20~40세 미만 2그룹, 40~60세 미만을 3그룹, 60세 이상은 4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필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여기서 필요서비스는 '조금 필요' 와 '매우 필요'를 응답한 수를 파악하였으며 복수응답 하였다.

1그룹(0~20세미만)에서 필요한 서비스 순서로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가 각각 44번씩 응답하여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수 대비 필요서비스 순서는 [표29]와 같다.

[표34] 1그룹 필요서비스 순서

순번	구분	빈도(명)	비율(%)
1	놀이치료	44	89.7
2	음악치료	44	86.2
3	미술치료	44	83.0
4	언어치료	43	82.6
5	특수체육	41	80.3
6	작업치료	39	76.4

성인기 이전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중심의 서비스를 필요서비스로 보고 장애의 정도를 완화하거 악화되지 않는 치료를 위해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그룹(20~40세미만)에서는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취업알선' 이 50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직업상담'(47회), '직업훈련(47회)' '장애인 평생교육' 순 이었다. 2그룹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취업알선과 교육·훈련 등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35] 2그룹 필요서비스 순서

순번	구분	빈도(명)	비율(%)
1	취업알선	50	83.3
2	직업훈련	47	82.4
3	직업상담	47	81.0
4	장애인평생교육	45	78.9
5	자립생활훈련	44	77.1
6	취미생활지원	42	75.0

3그룹(40~60세미만)에서는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와 '편의증진시설개선' 등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선을 필요서비스로 꼽았다. 노동의 능력이 원숙해지는 시기로서 사회적 위치 때문에 경제활동의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서비스요구로 '편의증진시설개선', '지역사회 장애인인권교육의 응답이 많았다.

[표36] 3그룹 필요서비스 순서

순번	구분	빈도(명)	비율(%)
1	직업훈련	26	89.6
2	취업알선	26	89.6
3	편의증진 시설개선	26	89.6
4	지역사회 장애인인권교육	25	86.2
5	장애인 평생교육	24	82.7

4그룹(60세 이상)에서는 '여가생활지원', '취미생활 지원' 등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응답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4그룹의 대상자수가 적어 빈도의 차이가 큰 필요서비스는 4가지 정도로 추려졌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60세이상의 연령대는 '여가생활지원' 이나 '취미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응답자수가 다른 서비스 응답자 수보다 많았다.

[표37] 4그룹 필요서비스 순서

순번	구분	빈도(명)	비율(%)
1	여가생활지원	23	69.6
2	취미생활지원	19	59.3
3	편의증진시설개선	13	52.0
4	지역사회 장애인인권교육	12	50.0

5) 재가복지 제공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현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이용경험에 비추어 필요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가사서비스(청소, 취사, 세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통' 31.4%(54명), '매우필요' 25.6%(44명), '조금 필요' 22.1%(3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38] 가사서비스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44	25.6
조금필요	38	22.1
보통	54	31.4
조금필요	15	8.7
매우불필요	21	12.2
계	**172**	**100**

무응답 제외 (N=30)

간병서비스(안마, 병간호수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통' 26.0%(44명), '매우 불필요' 24.3%(41명), '조금 불필요' 17.8%(3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간병서비스는 요양보호기관의 요양보호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다른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39 간병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29	17.2
조금필요	25	14.7
보통	44	26.0
조금필요	30	17.8
매우불필요	41	24.3
계	169	100

무응답 제외 (N=33)

정서적 서비스(상담, 학업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조금필요' 30.2%(50명), '매우 필요' 27.9%(46명), '보통' 27.3%(45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은 앞서 조사한바와 같이 초등학교 졸업이하 응답자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대한 맞춤서비스로 한글교육같은 기초교육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비롯하여 온라인에서 상담접수를 24시간 개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40] 정서적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46	27.9
조금필요	50	30.2
보통	45	27.3
조금필요	12	7.3
매우불필요	12	7.3
계	165	100

무응답 제외 (N=37)

결연서비스(결연후원, 형제맺어주기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통' 33.3%(51명), '조금필요' 23.1%(36명), '매우 필요' 22.4%(35명)순으로 응답하였다.

[표41] 결연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35	22.4
조금필요	36	23.1
보통	52	33.3
조금필요	19	12.2
매우불필요	14	9.0
계	156	100

무응답 제외 (N=46)

의료서비스(정기방문, 진료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필요' 31.8%(54명), '조금 필요' 28.2%(48명), '보통' 24.7%(42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해에도 의료서비스에 관한 서비스욕구가 높아 지역사회의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이용인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2]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35	22.4
조금필요	36	23.1
보통	52	33.3
조금필요	19	12.2
매우불필요	14	9.0
계	156	100

무응답 제외 (N=46)

자립지원서비스(탁아, 취업알선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필요' 35.4%(56명), '보통' 24.7%(39명), '조금 필요' 22.2%(35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앞서 조사한 2그룹 내에서 취업·훈련·자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름방학기간 중 취업지원서비스 '잡(job)아라'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하반기 카페운영을 통하여 바리스타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표43] 자립지원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56	35.4
조금필요	35	22.2
보통	39	24.7
조금필요	10	6.3
매우불필요	18	11.4
계	158	100

무응답 제외 (N=44)

사회교육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필요' 42.1%(6776명), '조금 필요' 27.0%(43명), '보통' 20.8%(33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사회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지난해에 이어 디카교실과 풍선아트교실, 요가교실을 주1회씩 운영하고 있다.

[표44] 사회교육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67	42.1
조금필요	43	27.0
보통	33	20.8
조금필요	9	5.7
매우불필요	7	4.4
계	159	100

무응답 제외 (N=43)

위와같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중 가장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귀하께서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재가복지)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우선순위로 2가지만)라는 문항에서 '자립지원서비스'는 1순위 응답자가 21.2%(35명), 2순위 응답자가 19.7%(31명)으로 자립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립지원서비스' 외 '사회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순으로 우선순위를 답변하였다.

[표45] 필요서비스 순위

구분	1순위/빈도(명)	2순위/빈도(명)
가사서비스	21	16
간병서비스	6	9
정서적서비스	28	23
결연서비스	6	12
의료서비스	31	16
자립지원서비스	35	31
사회교육서비스	30	29
주야간보호서비스	6	10
단기보호서비스	1	9
기타	1	2
계	165	157

무응답 제외(1순위N=37/2순위=45)

6) 여가시간 활용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참여의 방법에 대한 조사로 첫째, 이동시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 '귀하께서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의 응답은 '일반버스' 39.6%(67명), '자가용' 31.4%(53명), '도보'(전동스쿠터, 휠체어) 14.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6] 주 이용교통수단

구분	빈도(명)	비율(%)
자가용	53	31.4
일반버스	67	39.4
저상버스	2	1.2
택시	6	3.6
장애인 콜택시	12	7.2
지하철	3	1.8
도보(전동스쿠터,휠체어)	24	14.2
셔틀버스	1	0.6
기타	1	0.6
계	**169**	**100**

무응답 제외 (N=33)

‘귀하께서 주로 여가시간 중 주로 무엇을 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TV·비디오시청, 라디오청취’ 52.0%(117명), ‘컴퓨터(인터넷,SNS 활용 등)’ 20.0%(45명), ‘운동’(등산, 스포츠 등) 6.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7] 여가시간 활용

구분	빈도(명)	비율(%)
TV·비디오시청, 라디오청취	71	49.0
연극·영화관람	3	2.1
운동(등산, 스포츠)	6	4.1
문화활동(음악회, 전시회등)	2	1.4
책읽기, 글쓰기	2	1.4
쇼핑	1	0.7
친교활동	10	6.9
종교활동	5	3.4
컴퓨터(인터넷, 소셜미디어)	24	16.6
시간이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	10	6.9
기타	11	7.5
계	145	100

무응답 제외 (N=57)

‘귀하께서 여가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여가활동 비용 부담’ 28.3%(41명), ‘사회의 부정정 인식’ 15.2%(22명), ‘대중교통 이용시 어려움’ 13.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8] 여가시간 활용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설부족	16	11.0
사회의 부정적 인식	22	15.2
대중교통 이용시 어려움	19	13.1
편의시설 부족	16	11.0
여가활동 비용 부담	41	28.3
거동 불편(활동지원없음)	9	6.3
여가활동 할 시간 없음	16	11.0
기타	6	4.1
계	**145**	**100**

무응답 제외 (N=57)

여러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프로그램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묻은 문항중 첫째 '사회교육(꽃꽂이, 문학강좌 등)'의 필요성에서는 '보통' 39.6%(63명), '조금 필요' 20.8%(33명), '매우필요' 14.5%(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9]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23	14.5
조금필요	33	20.8
보통	63	39.6
조금필요	22	13.8
매우불필요	18	11.3
계	159	100

무응답 제외 (N=43)

'건강활동(등산, 스포츠 질병예방 등)'의 필요성에서는 '매우필요' 38.6%(64명), '조금 필요' 30.7%(51명), '보통' 21.7%(36명), , 순으로 나타났다.

[표50] 건강활동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64	38.6
조금필요	51	30.7
보통	36	21.7
조금필요	7	4.2
매우불필요	8	4.8
계	166	100

무응답 제외 (N=36)

‘취업준비(자격증취득, 직장탐색 등)’의 필요성에서는 ‘매우필요’ 35.9%(60명) ‘보통’ 23.4%(39명), ‘조금 필요’ 21.6%(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1] 취업준비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60	35.9
조금필요	36	21.6
보통	39	23.4
조금필요	15	9.0
매우불필요	17	10.1
계	167	100

무응답 제외 (N=35)

‘종교활동’의 필요성에서는 ‘보통’ 47.0%(79명), ‘매우필요’ 20.8%(35명) ‘조금 필요’ 17.3%(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은 관 중심적인 지원이 아닌 활동을 지원하기 위환 내용으로 질문을 하였다.

[표52] 종교활동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35	20.8
조금필요	29	17.3
보통	79	47.0
조금필요	13	7.7
매우불필요	12	7.2
계	168	100

무응답 제외 (N=34)

‘자원봉사’의 필요성에서는 ‘보통’ 48.7%(77명), ‘조금 필요’ 17.7%(28명), ‘매우필요’ 17.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3] 자원봉사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27	17.1
조금필요	28	17.7
보통	77	48.7
조금필요	12	7.6
매우불필요	14	8.9
계	158	100

무응답 제외 (N=44)

‘여행’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는 ‘조금 필요’ 37.5%(64명), ‘매우필요’ 29.8%(51명), ‘보통’ 25.7%(4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4] 여행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51	29.8
조금필요	64	37.5
보통	44	25.7
조금필요	6	3.5
매우불필요	6	3.5
계	171	100

무응답 제외 (N=31)

‘문화활동(영화, 미술, 음악 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는 ‘조금 필요’ 40.5%(66명), ‘매우필요’ 29.4%(48명), ‘보통’ 25.8%(4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5] 여행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48	29.4
조금필요	66	40.5
보통	42	25.8
조금필요	3	1.8
매우불필요	4	2.5
계	163	100

무응답 제외 (N=39)

‘컴퓨터(인터넷, 소셜미디어 활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는 ‘보통’ 38.4%(63명), ‘조금 필요’ 30.5%(50명), ‘매우필요’ 19.5%(3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56] 컴퓨터 프로그램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필요	32	19.5
조금필요	50	30.5
보통	63	38.4
조금필요	7	4.3
매우불필요	12	7.3
계	164	100

무응답 제외 (N=38)

7) 남동구 장애인복지

지역내 장애인복지의 수준과 주 관심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남동구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여러 보기중 순위별 2개를 선택 하도록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순위로 남동구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경제적 지원확대' 가 1순위30.1%(53명), 2순위로도 11.2%(19명)으로 응답하여 경제적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업훈연 및 취업알선' 18.8%(33명), '장애인복지시설확충' 17.6%(31명)순으로 남동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꼽았다.

[표57] 남동구 주 관심분야

구분	1순위/빈도(명)	2순위/빈도(명)
경제적 지원 확대	53	19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31	26
보건 및 의료서비스 확대	12	24
여가·문화·체육 시설 및 서비스 확대	15	26
교육시설 및 관련서비스 확대	15	16
상담시설 및 서비스 확대	0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33	19
주거환경 개선	0	4
장애 조기발견 및 예방서비스	5	2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	8	14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교사 확충	2	13
정신질환 서비스 및 시설확대	0	2
기타	2	2
계	**176**	**170**

무응답 제외 (1순위N=26/2순위N=32)

마지막으로 남동구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해 '귀하께서는 남동구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63.1%(123명), '높다' 19.0%(37명), '낮다' 10.8%(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보통이다'를 중심으로 앞으로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58] 남동구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높다	8	4.0
높다	37	19.0
보통이다	123	63.1
낮다	21	10.8
매우낮다	6	3.1
계	**195**	**100**

무응답 제외 (N=7)

8) 기타 건의사항

서술형으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라는 문항에도 여러응답이 나왔다. 내용들을 추려 4가지로 분류하였고, 결과는 1. 서비스관련 2. 평생프로그램 관련 3. 시설 및 운영관련 4.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이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복지관의 상황과 건의내용을 종합하여 제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 서비스 관련

① 치료대상자의 제한 폐지
② 치료서비스 시설, 인력 확충으로 서비스 확대
③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확대

■ 평생 프로그램 관련

① 가족(부모,형제)프로그램 확대
② 대상자 확대 프로그램 개설
③ 주말프로그램 다양화

■ 시설·운영 관련

① 시설환경 확충 (주차시설 및 공간)
② 등록절차의 간소화

■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① 경제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
② 가사지원
③ 장애인식개선
④ 복지관의 전반적변화 요구

2013년 욕구조사 보고서

요약 및 제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Ⅲ. 요약 및 제언

1. 요약

2013년 전체 이용인 만족도 조사는 2013년 6월 현재 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 재가장애인, 남동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대상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34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남동구 비거주 장애인은 사전에 배제하였고, 비동의자 등 현실적 답변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28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202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개발한 남동구지역욕구조사 설문지를 시설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이용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47.4%(93명), '여자' 52.6%(103명)로 조사되어 '여자'가 '남자'에 비해 5.2%p 많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24.9%(48명), '10대'가 15.0%(29명)로 조사되었으며, '10대미만'이 13.0%(25명)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42.0%(79명), '기타-미취학등' 23.9%(45명)이며, '초등학교 졸업'이 13.3%(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비수급자'는 70.9%(136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22.4%(43명), '의료·교육 자활특례' 3.6%(7명), '조건부 수급자' 3.1%(6명)' 순으로 비수급 일반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 분포는 '남동구' 74.6%(147명), '인천광역시 내 타지역' 22.3%(44명), '타 시·도' 3.0%(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수입을 보면 '201만원 이상'의 응답자는 41.4%(79명)이며, '50만원 이하' 응답자는 23.0%(44명), '151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응답자는 13.1%(25명)으로 조사되었다.

■ 장애관련 특성 ■

응답자의 주장애유형 분포는 '지적장애' 40.6%(67명), '지체장애' 24.0%(24명), '뇌병변장애' 17.0%(28명)로 조사되어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1급'이 32.4%(61명), '2급'이 29.3%(55명), '3급' 20.2%(38명) 순으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1·2·3급 장애인이 81.9%로 조사되었다.

2) 욕구조사결과

■ 개인적 문제인식 ■

'귀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가족에게 도움 요청'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 59.0%(105명)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비율이 줄어들었으나 아직까지 가족에게 요청을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혼자서 해결' 15.7%(28명),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 12.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질문에는 '보통' 43.9%(87명), '심각함' 28.3%(56명), '심각하지 않음' 12.6%(25명) 순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분포를 보였다.

여러 문제 중 매우 심각함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노후 문제'로 27.9%(50명)이 응답하여 미래에 대한 취약점을 불안해 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인식(장애인차별)'과 같은 인식문제로 21.0%(38명), '취업 및 실업문제'로 매우 심각함 비율이 15.7%(2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후문제와 취업 및 실업문제는 소득적인 불안감에 의한 것으로

연결 될수 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조사추이를 매년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실태 및 사회복지욕구 정도 ■

'현재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7%(109명)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학교' 7.9%(12명), '사회복지관' 6.6%(10명) 순이었다.

■ 제공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

연령별로 나누어 제공서비스의 치료여부를 알아본 결과 **1그룹(0~20세미만)** 성인기 이전 아동·청소년 그룹에서는 치료서비스인 '놀이치료' 89.7%(44명), '음악치료' 86.2(44명), '미술치료' 83.0%(44명)으로 나타났다.

2그룹(20~40세미만)에서는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취업알선' 이 83.3%(5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직업상담' 82.4%(47명), '직업훈련' 81.0%(47명)' '장애인 평생교육' 78.9%(45명)순이었다. 직업과 관련하여 일자리와 그와 관련된 교육들을 응답자들이 중점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40~60세미만)에서는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와 '편의증진시설개선' 등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선을 필요서비스로 꼽았다. 노동의 능력이 원숙해지는 시기로서 사회적 위치 때문에 경제활동의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가장 많았으나 '편의증진시설개선', '지역사회 장애인인권교육' 에대한 응답도 3,4순위로 나타났다.

4그룹(60세 이상)에서는 '여가생활지원', '취미생활 지원' 등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응답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4그룹의 대상자수가 적어 빈도의 차이가 큰 필요서비스는 4가지 정도로 추려졌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60세이상의 연령대는 '여가생활지원' 23회 이나 '취미생활지원' 19회 등 위2가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응답자수가 다른 서비스 응답자 수보다 많았다.

■ 재가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중 '매우필요'라고 응답한 서비스는 '자립지원서비스'로 1순위 응답자가 21.2%(35명), 2순위 응답자가 19.7%(31명)으로 자립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립지원서비스' 외 '사회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순으로 우선순위를 답변하였다.

■ 사회참여 수단 및 여가시간 활용 ■

외출할 때 이동교통수단을 묻는 질문에서 '버스'(저상버스 포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도보', '지하철',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약70%를 차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시간에 주로 활용하는 여가는 과반수 가까이 TV시청이나 라디오청취 49.0%(71명)였고 그 다음 순으로 '컴퓨터를 활용' 16.6%(24명)한다고 응답하였다.

여러 여가활동 프로그램 중 '매우 필요'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건강활동 프로그램' 으로 '매우 필요' 응답이 38.6%(64명)있었고, 다음으로는 '취업준비 프로그램' 으로 '매우 필요' 응답이 35.9%(60명), '여행 프로그램' 29.8%(51명) 순이었다.

■ 남동구 장애인복지 ■

남동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적 지원확대' 가 1순위30.1%(53명), 2순위 11.2%(19명)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직업훈연 및 취업알선' 18.8%(33명), '장애인복지시설확충' 17.6%(31명)순으로 남동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

다’ 63.1%(123명), ‘높다’ 19.0%(37명), ‘낮다’ 10.8%(21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지난해부터 변경된 설문지를 통해 욕구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번 조사는 남동구 관내 타기관의 사례관리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좀더 일반화 될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 다각적인면에서 이용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의미한 조사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따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우리복지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서비스관련

서비스관련 부분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용인의 지지를 받지만 해가 갈수록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 만족도가 상반되므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진데에는 전반적인 경제침체기로 인해 고용시장이 나쁜점 특히 직업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들의 고용상태는 더욱 얼어붙어 있다. 이러한 직업관련 문제는 노후문제가 가장 취약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과 가장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요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취업알선을 위한 기업체 모집·홍보를 늘리고 사업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기 이전의 대상자들의 욕구는 치료서비스 대상자의 연령폐지나 치료인력, 인프라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집중되어 있으나 비단 본 복지관 뿐아니라 전반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숙원적인 문제로써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없이는 힘든점을 충분히 설명 해야 할 부분이며 내부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몇 년전부터 일생의 전반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평생교육이 복지영역 전반에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본 복지관도 2009년 '남동대학' 2011년 '남동아카데미' 등 성인을 맞은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더 나아가 가족(부모,형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주말까지 아우르는 욕구확대로 인하여 가족프로그램과 주말프로그램을 신규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인에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여 차기년도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성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심이 많은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자체운영중인 카페와 연계하는 등 점차 세분화 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복지관의 물적,인적, 시간적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욕구들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지원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금번 욕구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복지관자원으로는 한계가 따르므로, 지자체의 복지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되 시간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가사지원이나 장애인등록절차 간소화 등은 법령에 맞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중·장기 사업계획 관련

복지관의 설립목적이나 법인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반대의 경우는 적극수립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복지관이 2017년까지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생태복지를 이용인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해맑음땀방울농장'을 비롯한 친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모형 개발을 위한 첫걸음으로 복지인력자원 확보차원에서 실습영역강화와 홍보서포터즈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3. 조사를 마치며

금번 욕구조사는 복지관에서 활용가능한 대상자 외 외부자원-남동구 관내 복지기관-을 동원하였으나 케이스 수가 적어여 객관적 또는 일반화를 위한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또, 전반적으로 문항수가 너무 많다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점은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정, 보완하여 차기년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응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는 금번에 실시한 시기가 하반기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도 있는 점에서 적절하였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조사프로그램인 spss가 평가판으로만 하기엔 분석적인 면에서 어려운점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욕구조사 역시 설문조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며, 달리 보답할 방법이 없어 송구 스럽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항상 이보고서가 우리복지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3년 욕구조사 보고서

남동발간 2013-8

■ **발행일** : 2013년 9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임 종 수

■ **주 소** : (405-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